

창원 聖住寺 地藏殿과 靈山殿 石造佛像에 관한 연구

이 희 정*

〈목 차〉

- I. 머리말
- II. 地藏殿 · 靈山殿 불상의 현황
- III. 조각승 勝湖의 양식적 특징과 전개
- IV. 승호의 생애와 계보문제
- V. 승호 · 승호파의 활동지역과 佛石의 공급
- VI. 맺음말

국문요약

성주사는 창원의 고찰로, 9세기 무렵 초창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존하는 전각이나 불상들은 임란이후의 것이 대부분이다.

성주사 불교문화재의 구체적인 현황은 2009년 6월 문화재지정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롭게도 지장전 불상을 조성한 勝浩가 영산전 불상을 조성한 사실과 인근의 기장 장안사 응진전(1684)과 명부전(1684), 의령 수도암(17세기 후반), 청도 덕사의 영산보전(1678)과 명부전(1678), 청송 대전사 보광전(1685)의 불상들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승호가 남긴 작품의 현황을 볼 때 성주사 영산전 불상은 지장전 불상과 함께 1681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승호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둔중한 신체감, 사선의 눈매, 균의 가장 안쪽단 2개가 대칭으로 반전하는 것이라든지 소매의 단 끝이 무릎 쪽으로 꺾이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의 불상은 소위 경주 옥석이라고 하는 불석으로 조성된 상이며, 불석은 포항인근에서만 산출되는 돌이다. 불석불상의 분포는 공교롭게도 경상도 지역 해안가나 낙동강 수운이 발달한 곳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불상

* 문화재청 부산국제부두 문화재감정위원

재료를 운송할 수 있는 해운과 수로의 발달, 즉 상업루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 내용이다.

주제어 : 성주사, 지정전, 영산전, 승호, 승호파, 불석

I. 머리말

성주사는 창원 지역 고찰중의 하나로, 임란이후 곰이 중수를 도왔다는 전설을 연유로¹⁾ ‘熊神寺’, ‘곰절’로 불리기도 한다. 이 절은 『聖住寺創建事蹟』에 의하면 신라 제42대 흥덕대왕때(826-835)에 창건하였다²⁾고 하나 당시 유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찰 연혁을 밝히기 위한 적극적인 기록은 2009년 6월 대웅전, 지장전, 영산전에 봉안된 불상의 문화재 지정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전각내 봉안된 불상들이 모두 17세기 중·후반의 작품들로 임란이후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장전과 영산전 불상은 얼굴이나 법의를 입은 모습 등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³⁾ 같은 조각승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장전 불상을 조성한 ‘勝浩’는 경상도에서 활동한 조각승으로, 1684년에 부산 기장 장안사 명부전과 응진전 불상을 조성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영산전 불상은 복장물이 없어 조성시기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승호는 특이하게 여러 전각에 동시 불사를 하는 특이한 작례들도 확인되어 성주사 양 전각의 諸像도 이러한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에 필자는 성주사 지장전, 영산전 불상의 동시조성을 다른 지역의 불상조성의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이 성주사 지장전과 영산전 불상은 기존 연구 성과로 보면 승호의 양식적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통해 승호 작품 혹은 승호와 작품을 새로이 발견해 보고, 양식의 계승과 전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곧 계보의 문체와 직결된다. 마지막으로 승호가 조성한 불상들은 모두 지역성이 강한 불석불상으로 조성된 것이다. 즉 승호작품이 남아 있는 사찰의 위치는 불석의 공급, 운반수단과 밀접한 관계를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聖住寺創建事蹟』 “...眞鏡大師慨然有興復之志迎工匠設斧斤 有數百群熊 運移棟梁之木 助役成之事畢後忽隱不見 世稱大師道化廣大 群熊感師法乳得養而然也 中間改寺名 稱熊神 良有是事故夜...”

2) 『聖住寺創建事蹟』 “... 今茲聖住寺乃新羅四十一世興德大王之始創...”

3) 金吉雄, 2007, 『彫刻僧 勝浩가 제작한 불상』, 『문화사학』제27, 881~894쪽.

최선일, 2010,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의 활동과 불상연구』, 『선문화연구』제8집, 83~116쪽.

II. 지장전 · 영산전 불상의 현황

1. 지장전 석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지장전은 성주사 경내 진입로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사찰측에 의하면 원래는 대웅전 아래 현 설법전의 자리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명부전이 있었다고 전한다.



도 1. 창원 성주사 지장전 석조삼존불좌상 전경



도 2. 지장전 석조지장보살좌상(1681), 승호작, 상높이117.0cm

중앙 방형 불단 위에 지장보살상을 중심으로 우측에 무독귀왕 좌측에 도명존자가 위치해 있다(도 1). 그 양측으로 각각 5인의 시왕과 5인의 동자가 곁에 있고, 그 옆으로 판관, 귀왕, 사자, 인왕상의 순으로 위치해 있다.

각 상들의 얼굴의 특징이나 신체비례 등은 특징은 본존상과 다르지 않아 본존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본존인 지장보살상(도 2)은 민머리의 승문 비구형으로 상반신을 세워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頭高가 길어져 신체에 비해 머리가 커 보인다. 방형의 상반신에 다리폭이 넓어 안정감이 있다. 신체 측면도 상당히 두꺼워 무게감이 있어 보인다.

항마촉지인의 수인으로 보주가 올려진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해 무릎 위에 엮고, 손등을 위로한 오른손은 손가락을 모두 펴 아래로 향하였다.

이마선으로부터 턱까지 얼굴이 긴 편이며, 양 뺨에는 볼록하게 양감이 있다. 넓은 이마와 뚜렷한 눈썹선 아래에 사선으로 치켜 올라간 눈, 얼굴 중앙에 오목한

코, 깊은 비랑선과 선명한 콧방울, 넓은 인중선, 턱을 당겨 힘을 주고 있는 듯한 얼굴의 모습에서 강인하면서도 이색적인 인상을 느낄 수 있다. 목에는 좁은 간격의 삼도선이 음각되어 있다. 얼굴 측면에 밀착된 양 귀는 귓불이 뒤쪽으로 뽀족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

착의법은 오른쪽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입어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어 내린 변형통견식이다. 오른쪽 어깨의 대의주름이나 배 앞으로 흘러내린 편삼은 간략하게 도식화되었으며, 가슴 위로 올려 입은 승각기는 3개의 주름으로 접어 연꽃으로 모양을 내었다. 무릎에 사이로 올라가는 한 개의 군의 옷주름선과 다리사이 양측으로 2개 옷주름으로 접어 간결하게 펼쳐놓았다. 왼쪽 다리 위에 놓인 앞사귀 모양의 소매자락도 간략하다.

양측 협시인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은 입상으로, 원류관을 쓰고, 단령과 군위를 입고 靴를 신었다는 의복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본존상의 특징과 대동소이하다.

2006년 중수도금과정에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은 楮紙白色에 묵서의 해서체로 적혀 있었으며, 조성연대, 봉안처, 시주자, 지진, 화원, 공양주, 별좌와 회주의 순서대로 적어 놓았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主佛 願文

康熙二十辛酉年四月日造成佛像十王安于佛母山熊神寺,願二次功德 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施主秩,布施大施主 通政大夫 靈寬比丘,布施大施主 朴同志 兩主,圃團大施主 朴命吉 兩主,地藏主大施主 李云世 兩主,道明尊者大施主 戒介 單身,無毒鬼王大施主 南奉先 兩主,第一秦廣大王大施主 璇玉 比丘,第二初江大王大施主 尙學 楚式 比丘,第三宋帝大王大施主 金聖建 兩主,第四五官大王大施主 一英 天日 比丘,第五閻羅大王大施主 崔是金 崔道男 兩主,第六變成大王大施主 曹彭祚 李順命 兩主,第七泰山大王大施主 金斗和 兩主,第八平等大王大施主 金以成 兩主 梁召史 保體,第九都市大王大施主 靈悟 比丘,第十五道轉輪大王大施主 李仁立 保體,判官大施主 裴後發 保體,判官大施主 裴終必 保體,鬼王大施主 尙隣 比丘,鬼王大施主 一性 比丘,使者大施主 惠俊 比丘,使者大施主 三眼 比丘,將軍大施主 黃己用 兩主 龍召史 兩主,童子大施主 吳順發 兩主,童子大施主保體 順發 保體,童子大施主兩主 崔下立 兩主,童子大施主 崔召史 兩主,童子大施主 妙哲 兩主,童子大施主 李己用 保體,童子大施主 雲日 比丘,童子大施主 小(叱)長 保體,童子大施主 一嚴 比丘,童子大施主 金己蓮 兩主,腹藏大施主 羅戒生 兩主,腹藏大施主 是侃 比丘,朱紅大施主 坦修 比丘,喉鈴桶大施主 黃戒奉 兩主,喉鈴桶大施主 曹春白 兩主,鐵物大施主 朴日萬 兩主,喉鈴桶施主 李順生 兩主,燈燭清蜜兼大施主 寶閑 比丘,緣

化秩, 證明 誌公 和尚, 持殿 尙文 比丘, 畫員 勝湖 比丘, 尙倫 比丘, 學淨 比丘, 卓文 比丘, 天潭 比丘, 寶藏 比丘, 呂岑 比丘, 笠令 比丘, 禪俊 比丘, 法眼 比丘, 處屹 比丘, 守行 比丘, 處行 比丘, 儀淨 比丘, 法宗 比丘, 敏侃 比丘, 天龍 保體, 海發 保體, 供養 主 玉熙 比丘, 玉宗 比丘, 海玉 比丘, 別座 熙尙 比丘, 金禿立 兩主, 化主 熙卞 比丘,

위 내용은 지장전 불상은 康熙二十辛酉年(1681)에 지장보살상, 시왕상과 동자상, 판관, 시자, 장군이 구성되어 佛母山 熊神寺에 봉안되었다. 불상은 조성한 화원은 수화승 勝湖, 尙倫, 學淨, 卓文 등을 비롯해 모두 18인이 참여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熊信寺는 성주사의 옛 이름으로, 지장전의 불상이 조성될 당시인 1681년까지도 응신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화승 승호는 인근 기장 장안사 명부전과 응진전 내 석조불상(1684)을 조성한 인물이다. 성주사 지장전 불상보다 3년 늦게 조성된 기장 장안사 명부전상들은 신체비례나 얼굴의 세부표현 등 모습이 매우 닮아 있지만 성주사 지장전상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양감이 줄고 부드러워 졌다. 측면을 보더라도 복부나 가슴의 두께감이 약화되어⁴⁾ 간략화, 양식화 되어감을 보여준다. 이는 같은 조각승에 의해 조성되었더라도 시기가 떨어지는 작품은 간략화되고 원미감이 더해지는 것은 조선 후기 불상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다.

2. 영산전 석조삼존상과 16나한상

영산전은 대웅전 건물의 향우측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 정면3칸, 측면2칸의 건물이다. 천정이 낮고 좁은 건물내부에 석가삼존상과 16나한상,⁵⁾ 천부상, 동자와 사자상을 포함해 25구가 빼곡히 봉안되어 있다.

중앙 불단에 놓인 석조삼존상(도3)은 ‘受記三尊’의 형식으로, 석가상을 중심으로 우측은 머리에 두건을 쓴 제화갈라보살, 좌측은 머리에 보관을 둔 미륵보살이 있다. 모든 상들의 얼굴, 법의 등 표현기법이 본존상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⁴⁾ 창원 성주사 지장전 석조지장보살좌상은 가슴두께 33.3 cm, 복부두께 36.5 cm이며, 장안사 지장상은 상높이 104.5cm, 가슴두께 28.8cm, 복부두께 29.6cm이다.

⁵⁾ 영산전 불상은 거의 불석으로 조성되었지만 본존상으로부터 향우측 5, 6번째 나한상은 목조상이다. 얼굴 모습이나 법의 형태가 석조나한상들과 닮아 있어 석조 나한상을 모본으로 이후에 후보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존상의 규격은 頭高 32.3 cm, 面幅 22.0 cm, 肩幅 41.5 cm, 胸厚 23.0 cm, 腹厚 29.5 cm, 膝幅 65.0 cm, 膝高 22.0 cm이다.



도 3. 창원 성주사 영산전 석조삼존불좌상 전경 도 4. 영산전 석조석가여래 좌상(1681), 승호작, 상높이 89.5cm

본존인 석가여래좌상(도 4)을 중심으로 특징을 보면, 허리를 세우로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이며, 신체는 어깨가 좁은 방형의 상반신으로 무릎이 높고, 다리 폭을 넓게 해 자세에 안정감을 주었다.

수인은 항마촉지인이나 왼 무릎 위에 놓은 왼손은 엄지와 중지가 닿지 않은 모습이며, 오른손은 손등을 위로 해 촉지인을 결하였다.

머리와 얼굴은 상당히 특징 있다. 머리와 구분되지 않은 낮은 육계가 있으며, 이마선이 넓은 방형의 얼굴이다. 수평으로 그은 눈썹과 직각을 이루며 내려오는 큼직하고 오뚝한 코, 그 아래 도드라진 넓은 인중, 살포시 다문 입술은 미소가 없는 무표정한 인상이다.

대의는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어 내린 변형 편단우견식으로 입었으며, 오른쪽 어깨 위의 대의 자락은 하나의 주름이 강조되면서 여러 겹으로 접혀 형식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밋밋한 가슴 아래에 수평으로 입은 승각기는 5개의 주름으로 접어 연잎형으로 모양을 내었으나 각각 크기와 모양이 달라 조선후기 석조불상 특유의 기술적인 한계를 보인다. 결가부좌한 다리 사이에 펼쳐진 균의자락은 양측으로 3개의 옷자락으로 펼쳐놓았으며, 왼손 아래는 옷주름 없이 좁으면서 길게 늘어진 나뭇잎 모양의 소맷자락이 있다.

영산전 불상의 신체비례와 얼굴, 법의의 표현 등은 이 시기에 활동한 색란, 충옥 등이 조성한 불상과는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얼굴의 표현기법은 매우 독특해 조각승을 유추해 낼 수 있을 정도인데 승호의 1688년 작으로 추정하고 있는⁶⁾ 군위 인각사 극락전 석조불상이 많은 참고가 된다. 인각사 조성발원문을 보면 수화승인 勝浩의 6명이 참여해 불상을 조성하였는데 신체비례, 법의, 방형의

얼굴, 수직을 이루는 눈썹과 코, 무표정한 얼굴의 인상, 왼쪽 무릎 아래 나뭇잎 모양의 소매 모양까지 닮아 영산전 불상은 승호의 작품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성주사 영산전 불상이 언제 조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인데 승호가 남긴 작품 사례와 양식적 특징을 통해 추정해 보고자 한다.

영산전 불상은 1688년 작으로 추정하는 군위 인각사 극락전 석조불상과 비교된다. 군위 인각사 극락전 석조불상은 방형의 상반신에 무릎이 높은 하반신, 낮은 육계와 이마선이 넓은 방형얼굴, 법의 표현 등이 성주사 영산전 불상과 기법의 차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측면을 보면 둔부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신체가 과체화되었으며, 가슴이 더욱 뭉뚱해지고 전체적으로 힘이 없고 형식화되어 영산전 불상의 둔중하지만 괴량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은 1688년 인각사 불상보다는 이전에 조성된 것만은 분명하다. 덧붙여 영산전 불상의 조성연대를 추정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것은 승호가 남긴 작품 사례이다. 승호는 다른 조각승과 달리 여러 전각에 불상을 동시에 조성한 예가 많다. 청도 덕사의 영산보전과 명부전의 석조불상(1678), 기장 장안사 명부전과 응진전 석조불상(1684), 군위 인각사 석조불상 나한전(1688)과 극락전 불상(1688년 추정)이 있으며, 인각사는 명부전의 석조불상도 승호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현재 이 불상들이 봉안된 전각이 주전각이 아닌 응진전(영산전)이나 명부전(지장전)으로 조선후기 사찰의 구성으로 보면 2차적인 성격의 전각이다. 성주사의 영산전과 지장전도 역시 2차 전각으로 위 사례들과 비교하면 두 전각의 불상이 동시 조성되었을 개연성을 크다고 본다. 무엇보다 승호의 사례외에 다른 조각승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보기 힘들다.

승호의 조각적인 역량은 영산전 불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된다. 본존을 중심으로 같은 모습의 협시를 조성하는 기존의 ‘受記三尊形式’을 승호는 가운데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우측에 두건을 쓴 제화갈라보살, 좌측에 보관을 쓴 미륵보살로 구성함으로써 예배자에게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은 다른 조각승과는 차별화된 것이라 생각된다.⁶⁾

⁶⁾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8,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경북Ⅱ』자료집, 262쪽 참조/ 최선일, 2010, 같은 논문, 96~97쪽.

⁷⁾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은 석가를 중심으로 우측에 제화갈라, 좌측에 미륵보살을 봉안해 두었다. 양측 협시는 동일한 형식의 상이며, 팔의 위치만 반대를 하고 있다. “...辛丑(1661)之夏名曰釋迦尊相噫吁戲金身顯煥崑崙海上之孤峰妙相莊嚴皎皎星中之圓月偉提花鬘羅慈氏彌勒何爲...”

Ⅲ. 勝浩(湖), 勝浩派의 양식적 특징과 전개

성주사 지장전 불상을 조성한 승호는 2007년 청도 덕사, 청송 대전사 보광전 불상 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지게 되었으며,⁸⁾ 한국사찰 문화재 일제조사가 경상북도와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전역에 실시되면서⁹⁾ 이에 대한 자료가 더욱 풍부해 졌다.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보면 勝浩의 활동내용은 보조화승으로서 거창 심우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40), 칠곡 송림사 극락전 석조아미타불좌상(1655)조성에 참여한 것과 수화승이 된 후 청도 덕사 영산보전, 명부전의 불상조성(1678), 창원 성주사 영산전과 지장전 불상(1681), 기장 장안사 명부전과 응진전 불상(1684), 청송 대전사 보광전 불상(1685), 군위 인각사 불상(1688) 등 모두 8건에 해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勝浩 作品目錄

	존명	지역	조성연대	조각승	출처	비고
1	居昌 尋牛寺 대웅전목조아미타불좌상	경남	1640	畫員 淸虛 法玄 賢允 勝浩		
2	칠곡 松林寺 極樂殿石造阿彌陀三尊佛坐像	경북	1655	畫員 道祐 勝浩 敬玉 敬信 惠淸 道哲 玉淳		
3	청도 德寺 靈山寶殿 石造三尊佛坐像	경북	1678	首頭畫員 勝湖 尙倫 尙淨 呂岑 天擇 卓獻 淸眼 自日 德莊 德玄	腹藏發願文	
4	청도 德寺 冥府殿 石造地藏菩薩坐像 · 石造十王像	경북	1678	勝湖 學淨 尙倫 呂岑 天擇 卓獻 淸眼 自日 德藏 德雲	腹藏發願文	
5	창원 聖住寺 地藏殿 石造地藏菩薩坐像 · 石造十王像	경남	1681	畫員 勝湖 尙倫 學淨 卓文 天澤 寶藏 呂岑 竺令 禪俊 法眼 虛屹 守行 虛行 儀淨 法宗 敏胤 天龍 海發		

⁸⁾ 金吉雄, 2007, 『彫刻僧 勝浩가 제작한 불상』, 『문화사학』제27, 881~894쪽.

⁹⁾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7,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경북Ⅰ』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8,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경북Ⅱ』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9,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Ⅰ』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10, 『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Ⅱ』

¹⁰⁾ 성주사 영산전 불상은 불상저면에 묵서로 된 중수기록이 간략하게 적혀 있는데 1803년에 성주

	존명	지역	조성 연대	조각승	출처	비고
6	창원 聖住寺 靈山殿 石造三尊佛坐像 · 16 羅漢像	경남	1681 (추정)	畫員 勝湖추정...		1803년 중수 ¹⁰⁾
7	機張 長安寺 應眞殿石 造釋迦三尊佛坐像 · 石造羅漢像	부산	1684	良工 勝湖 熙衍 天輝 天 擇 ... 守宗 ...		
8	機張 長安寺 冥府殿石 造地藏菩薩坐像 · 石 造十王像	부산	1684	良工 勝湖 熙衍 天輝 天 擇 ... 守宗 ...		
9	청송 大典寺 寶光殿 石 造釋迦三尊佛坐像	경북	1685	畫員 勝湖 密倫 呂岑 天澤 ... 守衍 ... 寶海 守日 ...		
10	군위 麟角寺 石造釋迦 三尊佛坐像	경북	1688 (추정)	畫員 勝湖 尙倫 呂岑 善仁 ... 天擇		

현재 조사된 기년명의 승호 작품은 상호의 차이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표 2). 두 유형의 불상은 방향의 상반신과 무릎이 높은 하반신의 신체비례는 공통적이지만 얼굴과 법의 표현이 각각 달라 이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가'유형 불상은 표 2와 같고 각 상의 공통적 특징을 다음과 같다.

표 2. <가> 유형>

		
청도 덕사 영산보전 석조석가 여래상(1678)	청도 덕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 좌상(1678)	창원 성주사 지장전석조지장보 살좌상(1681)

사 화원과 범어사 화원이 참여해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嘉慶捌年癸亥四月 羅漢重修爲
畫員秩, 本寺 演洪, 有性, 戒儀, 展寬, 梵魚寺 勝奎, 本寺老畫員 處寬...”



이 상들은 모두 상반신에 비해 하반신이 둔중하고 무게감이 있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점은 조선후기 불상의 공통적 특징이지만 승호는 머리가 장방형으로 길다. 여래상의 경우 육계가 높고, 지장보살은 이마가 아주 넓어 머리가 장방형을 이룬다. 이마와 면폭이 거의 동일한 방형 얼굴이며, 눈썹에서 이어진 오펝한 코는 콧방울의 선각이 강하다. 사선으로 올라간 긴 눈, 볼록하게 도드라진 넓은 인중과 작은 입술에는 미소가 있다. 귀는 작지만 외연의 상단과 귓볼이 두툼하며, 귓볼 끝이 뾰족하다. 전체적으로 턱을 당겨 힘을 주고, 올라간 눈꼬리 등의 표현으로 인상이 강하다.

법의를 왼쪽에 내의인 편삼을 입고 그 위에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어 대의를 돌려 입을 변형 통견식으로 입었다. 공통적으로 오른쪽 어깨에 안쪽 한 자락이 넓고 강조되었으며, 왼팔 측면 상박에 세로로 내려오는 굵은 주름 앞으로 또 하나의 세로 주름이 있는 표현(도 5, 6)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색란이나 충옥의 작품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색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김해 모은암 석조불상의 왼팔 측면 상박에 나란히 주름을 잡아 굵은 옷주름만으로 표현된 것과는 비교된다(도 7).

승호작의 두드러진 특징은 균의와 소매단의 처리이다. 우선 균의는 두 가지를 표현되었다. 기장 장안사 응진전 본존상과 같이 균의를 두 개의 옷주름으로 정리하면서 안자락의 가장자리가 서로 대칭되게 반전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도 8). 두 번째는 청송 대전사 보광전 석조삼존불좌상과 같이 발목으로부터 내려오는 균의를 양측으로 3개의 주름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형태인데 이 형식은 '나유형의 불상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왼손 아래의 무릎쪽으로 비스듬히 놓인 듯한 소매자락은 단의 끝이 무릎쪽으로 살짝 꺾여 승호가 조성한 불상에 공통적으로 드러난다(도 8).



도 5. 창원 성주사
지장전 석조지장
보살 좌상(측면),
승호작



도 6. 기장 장안사 응
진전 석조석가여래
좌상(측면), 승호작



도 7. 김해 모은암
석조여래좌상
(측면), 색란작
추정



도 8. 기장 장안사 응진전석조석
가여래좌상(군의, 소매세부),
승호작

아직 기년명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가’ 유형의 불상들은 경상도 지역 밀양, 청도, 삼척, 영천, 울주 원거리는 전북 고창, 강원도 삼척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표 3. ‘가’ 유형 승호파 작품목록

			그 외 삼척 신흥사 대웅전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영천 은혜사 기기암 김천 계림사 대웅전 달성 용연사 영산전 밀양 만어사 대웅전 거창 연수사 대웅전 김천 계림사 대웅전 등 ¹¹⁾
고창 선운사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좌상	경산 환성사 명부전석조지장보살좌상	의성 수정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좌상	
			그 외 청도 운문사 내원암 군산 상주사 나한전 통영 안정사 나한전 달성 용연사 대웅전 울주 석남사 강선당 청도 용천사 나한전 등 ¹²⁾
대구 동화사 영산전 석조지장보살상	경주 불국사 나한전 석조여래좌상	청도 운문사 나한전 석조여래좌상	

신체비례, 머리형, 법의 양식 등 승호 작품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소위 승호 파에 분류될 수 있는 불상들이며, 모두 석재로 조성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나’ 유형에 해당하는 불상으로 창원 성주사 영산전 석조삼존상, 군위 인각사 극락전 석조석가여래좌상(승호작 추정) 등이다.

표 4. <‘나’ 유형>

<p>도 9. 창원 성주사 영산전 석조석가여래좌상(승호작 추정)</p>	<p>도 10. 군위 인각사 극락전 석조석가여래좌상(승호작 추정)</p>

‘가’ 유형과 같이 왼쪽 어깨에 가장 안쪽 한 자락만 강조된 것이라든지 오른 팔 측면에 한 줄의 옷주름이 더 내려오는 특징(도 10) 등은 대동소이하지만 얼굴에 변화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소매자락과 군의 처리 등에 차이가 있다.

‘가’와 ‘나’유형을 비교해 보면, ‘나’ 유형은 ‘가’유형과 달리 이마선이 넓은 방형 얼굴이며, 육계도 낮다. 수평으로 길게 그은 눈과 눈썹, 눈썹과 직각을 이루며 쪽 뺨은 코, 도드라진 넓은 인중이 특징이다(도 11,12).

<p>도 11. ‘가’ 유형의 불상 얼굴세부 좌: 기장 장안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좌상(1684) 우: 청도 덕사 영산보전 석조여래좌상(1678)</p>	<p>도 12. ‘나’ 유형 얼굴세부(창원 성주사 석조석가여래좌상(1681))</p>

11) 청도에 소재한 대둔사 극락전 석조삼존불좌상, 용천사 나한전 석조석가여래좌상, 대비사 대웅전 불상, 강릉 보현사 대웅보전 석조삼존불좌상, 영천 부귀사 극락전 석조삼존불좌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 청도 용천사 나한전 석조보살좌상, 울주 석남사 강선당 석조보살좌상, 영천 은혜사 기기암 석조보살좌상, 군위 지보사 대웅전 양협시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군의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무릎으로부터 다리로 올라가는 여러 개의 군의주름과 양 다리사이에 3개의 옷주름으로 나누어 양 무릎사이에 펼쳐 놓은 군의 자락의 모습(도 13)은 공통적이다. 청송 대전사 석조삼존상은 ‘가’유형에 속하는 불상이지만 다리로 쪽으로 올라가는 한 개의 군의 주름과 양다리 사이의 펼쳐 놓은 군의 모습은 ‘나’유형과 닮아 불상에 따라 양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도 14). 왼손아래 소매자락도 소매끝단이 꺾여 있는 모습은 ‘가’유형과 닮았으나 ‘나’유형은 길이가 약간 길고 옷주름의 표현 없이 형태만을 나타내었으며, 인각사 석조삼존불좌상(1688)은 선각으로 옷주름을 간략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도 13. 창원 성주사 영산전 본존상 군의세부(‘나’ 유형)



도 14. 청송 대전사 보광사 본존상 군의세부(‘가’ 유형)

‘나’ 유형의 양식적 특징 중 얼굴 모습은 매우 독특해서 이 유형의 불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유형에 속하는 불상은 포항 보경사 대웅전 석조삼존상(1679)¹³⁾, 의령 수도사 석조삼존상(17세기 후반)¹⁴⁾, 군위 지보사 석조삼존상, 통영 용화사 보광전 석조삼존상, 그리고 고성 옥천사 대웅전 석조삼존상 등이 이에 속한다(표 5).

표 5. ‘나’ 유형의 승호파 작품목록

포항 보경사 대웅전 석조 석가여래 좌상(1679)	통영 용화사 보광전 석조 아미타삼존상	군위 지보사 대웅전석조삼존불좌상

¹³⁾ 『朝鮮寺刹史料』 『清河郡內延山寶鏡寺金堂塔記』 “...康熙十六年丁巳有識勝道安天淳道儀等法堂重創所藏太謹者始於其春畢於己未秋以爲請良畫工造佛像三尊奉蓮華坐以安...”

¹⁴⁾ 수도사 석조삼존상 改粉記 “我 聖上即位之十一年 丙午五月日上壇後佛 幀造成緣(時同爲改粉) ...”



‘나’ 유형 불상중 포항 보경사 대웅전 석조삼존상은 『朝鮮寺刹史料』의 내용을 통해 보면 조각승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1679년이라는 기년명이 있는 불상이다. 이 상의 특징은 성주사 영산전 석조삼존상과 관련되는데 주목된다. 영산전 삼존상의 좌측 보살상은 이마선으로부터 등까지 흘러내린 두건을 쓰고 있는데 머리 앞쪽으로 세 개를 겹친 듯한 ‘V’자 주름은 보경사의 양협시에서도 동일하며, 의령 수도암의 좌협시, 경주 주사암의 협시상 등 승호와 불상의 협시에 공통적으로 드러난다(표 6).

표 6. 승호와 불상의 협시상



이 특징은 승호와 관련되는데 승호의 작품이 남아 있는 대전 청송사는 역시 승호의 제자가 조성한 1703년 명부전의 석조지장보살좌상이 있다. 명부전 본존상은 守衍이 조성하였는데 승호와와 공통되게 역시 두건을 길게 내려 쓰고 있다. 수연은 승호가 수화승으로 조성한 청송사 보광전 불상(1685)조성에 참여하였고,¹⁵⁷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두건을 쓰는 보살상의 형식을 승호에게서 배웠을

¹⁵⁷ 최선일, 2010, 같은 논문, 104, 105쪽 참조. / 金吉雄, 2008, 『靑松 大典寺 冥府殿 石造地藏菩薩』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 소개된 승호 혹은 승호파로 규정할 수 있는 불상은 모두 불석의 석조상만 확인되고 목조상이 보이지 않은 것은 특이한 일이다. 더욱이 17세기 후반 불석의 석조불상은 영남권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승호와 불상의 활동과 상당부분 일치해 석조상의 조성은 승호·승호파가 그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IV. 승호의 생애와 계보문제

영남권 상당수의 석조불상을 조성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승호는 그렇다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그의 불상양식에 영향을 미친 조각승은 누구인지 하는 계보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승호의 현존작품과 기록을 통해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승호는 居昌 尋牛寺 대웅전 목조아미타불좌상(1640)을 조성할 때 수화승 淸虛의 보조화승으로 처음 등장하는데 4인의 참여 화승중 맨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다.¹⁶⁾ 그리고 15년후 칠곡 松林寺 極樂殿石造阿彌陀三尊佛坐像(1655)을 조성할 때 道祐의 차화승으로¹⁷⁾ 참여하고 있다. 차화승의 위치는 수련기간을 거치고 수화승으로 활동할 만한 역량이 갖추어진 시기였을 것이다. 본격적인 수화승의 활동은 1678년 淸道 德寺의 영산보전과 명부전 석조불상 조성을 시작으로 창원 성주사 불상(1681), 기장 장안사 불상(1684), 군위 인각사 불상(1688) 등을 조성하였다.(표 6)

표 6. 승호의 작품활동

	거창 심우사	칠곡 송림사 배전	청도 德寺 영산보전	청도 德寺 명부전	창원 성주사 지장전	창원 성주사 영산보전	기장 장안사 나한전	기장 장안사 명부전	청송 대전사 보광전	군위 인각사 ¹⁸⁾
	경남	경남	경북		경남		부산		경북	경북
	1640	1655	1678		1681		1684		1685	1688
1	淸虛	道祐	勝湖	勝湖	勝湖	勝湖	勝湖	勝湖	勝湖	勝湖

三尊像에 관한 考察, 『文化史學』 제29호, 111~123쪽.

¹⁶⁾ 이희정, 2005,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淸憲』, 『불교미술사학회』 3호,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159~184쪽./ 김창균, 2002, 『거창·창녕 포교당 성보조사기』, 『聖寶』 제4호, 大韓佛敎曹溪宗 聖寶保存委員會, 157~172쪽.

¹⁷⁾ 文明大, 2006, 『松林寺 大雄殿 石 阿彌陀三尊佛坐像의 연구』, 『講座 美術史』 27호, 韓國佛敎美術史學會, 25~39쪽.

2	法玄	勝浩	尙倫	學淨	尙倫		熙衍	熙衍	密倫	尙倫
3	賢允	敬玉	尙淨	尙倫	學淨		天輝	天輝	呂岑	呂岑
4	勝浩	敬信	呂岑	呂岑	卓文		天澤	天澤	天澤	善仁
5		惠清	天擇	天擇	天澤		法然	法然	守宗	卓文
6		道哲	卓獻	卓獻	寶藏		法宗	法宗	靈遠	玉淨
7		玉淳	淸眼	淸眼	呂岑		守宗	守宗	就旭	天擇
8			自日	自日	竺令		虛屹	虛屹	幸湜	
9			德莊	德藏	禪俊		道信	道信	處屹	
10			德玄	德雲	法眼				守衍	
11					處屹				覺訥	
12					守行				就謀	
13					處行				進明	
14					儀淨				寶海	
15					法宗				守日	
16					敏侃				惟敬	
17					天龍				學尙	
18									幸淨	
19									○釋	
20									勝玄	
21									尙惠	
22									斗明	
23									處登	
24									普藏	
25									法能	
26									坦悟	
27									處旭	
28									決宗	
29									戒寬	
30									末○	
31									成敬	
32									萬興	

성호는 조각승의 활동도 확인되는데 경북 영천 수도사 노사나불괘불(1704)의 시주자¹⁹⁾와 경주 기림사 대웅전 기와 제작(1705)에 편수와 시주자로 참여하였으며,²⁰⁾ 전남 장흥 보림사 新法堂의 개금불사(1707)에도 동참하였다.²¹⁾ 그에 대

18) 근위 인각사의 극락전과 명부전의 불상은 성호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명부전의 지장 보살좌상은 사라지고 없지만 시왕상의 얼굴은 눈썹과 코가 직각을 이루는 것이라든지 넓고 도드라진 듯한 특징 등이 성호 '나' 유형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어 같은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19)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경북 I』, 2007,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1쪽.

20) 姜裕文, 1937, 『祇林寺重創記』, 『慶北五本山古今記要』, 慶北佛教協會, 92~93쪽.

21) 고경 감수, 김희태·최인선·양기수 譯註, 2001, 『역주 보림사 중창기』, “長興府迦智山寶林寺法堂各殿閣廡舍重創播瓦年月與工師化主別座等芳啣記錄”, 장흥문화원, pp.

한 마지막 기록은 1719년에 경주 기림사 대웅전 불상 중수도금발원문에 적힌 勝湖 靈駕의 내용이다.²²⁾

위 내용을 다시 구성해 보면, 1680년을 전후로 1707년 사이의 작품이 많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시기로 이때가 50~60세의 기간이 아닐까 한다. 1704년 이후의 기록은 직접적인 불상 조성이 아니라 각 절의 시주자나 편수 등 간단한 불사에 참여해 이미 노년기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1707년 이후 열반에 들었는데 이때가 80대 정도의 나이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이같이 본다면 승호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불상조성에 입문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²³⁾

승호의 활동을 보면 현진파의 청허와 무염파의 도우의 불상조성에 각각 참여하여 현진파 혹은 무염파인지 그의 계보에 의문이 간다.

필자는 승호는 분명한 현진파의 조각승으로 본다. 1640년 거창 심우사 목조 아미타불좌상을 조성한 청허(현)²⁴⁾도 역시 현진파의 조각승으로 알려져 있다.²⁵⁾ 양식적으로도 승호는 현진이나 청현 등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원 성주사 지장전과 명부전 불상이나 기장 장안사 명부전이나 응진전 불상의 소매와 균의단 처리를 보면, 다리에서 무릎으로 한 개의 옷주름이 올라가고, 양다리 사이에 균의의 가장 안쪽 단이 양측으로 반전되는 모양을 보인다. 이 양식의 시원은 玄眞의 작품에 볼 수 있으며, 靑憲과 현진파의 또 다른 조각승 勝日²⁶⁾이 이를 계승하고 있다. 현진은 균의의 가장 안쪽 양단이 접혀 내려오고, 청현과 승일은 끝단이 부드럽게 이어져 안쪽 단으로부터 반전되어 부드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같은 계통의 양식임을 알 수 있다(표 7). 승호는 현진, 청현과 승일의 표현법을 좀 더 딱딱하게 형식화시켜 자신만의 양식으로 완성시켰다.

22) 『慶州府東舍月山祇林寺大雄殿毘盧遮那如來重修鍍金化土槽越學比丘及引勸祭祀示發願文』,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경북 I』(2007), 169쪽.

23) 승호의 마지막 기록인 ‘勝浩靈駕’는 사후 곧 적은 기록일 수 있으나 생을 마감한 후 붙여지는 일반적인 용어로 꼭 1719년에 열반에 들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24) 필자는 거창 심우사 상을 조성한 이를 청현으로 본 바 있고, 이후 청현으로 칭한다.(이희정, 2005, 같은 논문, 169~174쪽.)

25) 송은석, 2004, 「17세기 彫刻僧 玄眞과 그 流派의 造像」, 『美術資料』 제70·71호, 70~76쪽.

26) 勝一은 창령 관룡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1629), 영광 불갑사 대웅전 목조삼존상(1636), 영남대 박물관조소장 목조아미타불좌상(1637)에 참여하였으며, 구례 천은사 목조보살상2구(1646)의 조성하면서부터 수화승으로 등장하여 김천 고방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70) 등 다수의 불상을 조성하였다. ; 이분희, 2006, 『조각승 勝一派의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 미술사』 제26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83~112쪽.

표 7. 현진파 조각승의 군의 변화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목조아미타불좌상 군의 세부 (현진작 추정, 1630년대)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약사여래좌상 군의세부(청현작, 1641)
	
강진 정수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좌상 군의세부(승일작, 1648)	기장 장안사 응진전 석조석가여래좌상(승호작, 1684)

또 다른 승호의 특징 중 현진파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왼쪽 손아래에 놓인 비스듬히 놓인 소매 자락이다. 승호작인 창원 성주사 지장전 본존상은 단축하게 무릎 위에 흘러내려 있거나 기장 장안사 응진전 본존상과 같이 소매자락의 단 끝이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이다(표8). 이 양식 역시 현진파 불상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소매단의 끝이 꺾인 양식은 구례 천은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46) 등 현진파 승일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으며, 창원 성주사 지장전 불상의 소매단 처리는 승일의 작품인 칠곡 송림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좌상(1665)의 소매단에서 역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표 8).

표 8. 현진파 조각승의 소매 변화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불좌상(승일, 1646)	기장 장안사 응진전 석조석가여래좌상(승호작, 1684)
	
칠곡 송림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좌상(승일작, 1665)	창원 성주사 지장전 석조지장보살좌상(승호,1681)

현진파와 승호의 관련성은 남아 있는 작품에서도 확인되는데 대구의 북지장사 대웅전에는 현진작으로 추정되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그림 15)²⁷⁷과 그 양측으로 석조 보살상2구(그림 16)가 협시로 봉안되어 있다.

²⁷⁷ 1630년대 작으로 보는 大邱 東華寺 金堂禪院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과 같다.(송은석, 2004, 같은 논문, 86~87쪽.)



도 15. 대구 복지장사
대웅전 목조아미타불좌상



도 16. 대구 복지장사 대웅전
석조세지보살좌상

양측의 석조보살상(도 16)은 방형의 상반신 높은 무릎 등의 신체비례, 얼굴과 인상, 소매 등의 처리로 보아 승호작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얼굴의 인상은 본존(도 15)과 유사하며, 양협시의 왼쪽 팔을 덮은 대의 주름이 줄고 팔 앞으로 형식적인 한 줄의 옷주름선을 더한 것이라든지 발목으로 내려오는 군의 안쪽단을 대칭되게 바깥으로 반전하는 모습이 본존의 양식을 단순화하거나 더욱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본존을 모방해 양협시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불상작업은 유과내의 작업이 일반적이는데,²⁸⁾ 승호도 역시 현진파의 한 사람으로 스승의 작품을 모방한 작품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승호와 도우가 같이 작업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과와 활동은 수조각승의 양식적 특징을 계승하면서 독립적인 개인양식을 이루어 가는데, 큰 불사의 경우 같은 유과끼리 작업도 하지만 두 세 개의 유과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²⁹⁾ 도우가 개인자격으로 다른 유과와 같이 작업을 한 경우³⁰⁾와 마찬가지로 승호도 경우라 생각된다.

칠곡 송림사 배전의 석조지장보살좌상(도 17)은 도우와 승호가 같이 작업하였지만 현진파의 양식적 특징을 찾아보기 힘들다. 배전의 석조지장상³¹⁾은 빈약하면서 긴 상반신에 넓은 무릎 폭으로 승호의 신체비례와 부피감 있는 측면 모습은 차이가 있고, 군의자락은 넓은 한 자락의 옷주름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3개의 주름으로 정리하여 군의 안쪽 단이 반전하는 승호 불상의 특징과는 차이가 있다.

²⁸⁾ 송은석, 2008, 『무염과 출신의 조각승 도우와 회장파의 합동작업』, 『미술사와 시각문화』7, 사회평론, 213쪽.

²⁹⁾ 송은석, 2008, 같은 논문 213쪽.

³⁰⁾ 송은석, 2008, 같은 논문, 213쪽.

³¹⁾ 배전에 봉안되었던 불상들은 지금은 천불전으로 이봉되어 있다.



도 17. 칠곡 송림사 배전 석조지장보살 좌상(도우작, 1655)



도 18. 칠곡 송림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 좌상(승일작, 1665)

오히려 승호의 특징은 칠곡 송림사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승일의 석조지장보살좌상(1665)(도 18)과 비교되는데 방형의 상반신과 높은 무릎의 하반신, 다리 위로 올라가는 한 줄의 옷주름과 양 다리 사이에 펼쳐놓은 균의자락은 성주사 지장전 석조지장보살좌상(도 2)과 오히려 닮아 현진파의 공통적 특징을 보여 준다.

이로 보면 승호는 분명한 현진파의 한 조각승으로 현진파의 양식적 특징을 계승하여 단순화시키거나 특징을 더욱 강조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개인 양식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V. 勝浩·勝浩派의 활동지역과 불석의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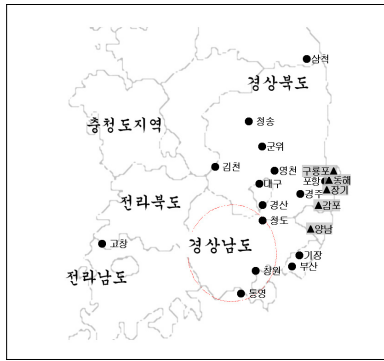
승호·승호파의 작품들은 모두 불석 소위 경주석이라는 석재로 조성되었다. 경주석이라는 이칭을 보더라도 이 석재는 일정한 지역에서만 산출되는 돌로 산출지에서 재료를 공급받아야 불상을 조성할 수 있어 목조나 소조와 같이 인근에서 재료를 쉽게 구하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표 9 를 보면 승호·승호파불상은 크기가 중형이상의 크기가 많아 어떻게 재료를 수급했는지 의문이 간다.(표 9참조)

표 9. 勝浩·勝浩派 조성불상의 봉안처와 불상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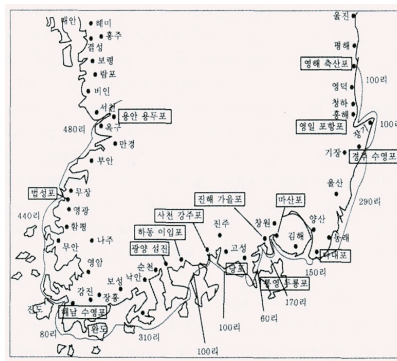
地域	奉安處 및 作品名 ²²⁾	規格(cm) - 像高	비고
강원도	삼척	신흥사 대웅전석조삼존불좌상	본존85.0/보현68.2/문수69.0
		보현사 대웅전석조삼존불좌상	본존85.0/보현68.2/문수69.0
전북	고창	선운사 참담암 석조지장시왕상	지장 79.0/도명85.0/무독94.0
	군산	상주사 나한전 석조삼존불상과 16나한상	
대구·경북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석조보살상 2구	세지109.0/관음 106.0
		동화사 영산전 석조삼존불상과 16나한상	석가 80.0/제화갈라70.5/미륵65.4
	달성	용연사 영산전 석조삼존불좌상과 16나한상	석가 77.0/제화갈라70.5/미륵74.0
	경주	불국사 나한전 석조삼존불좌상과 16나한상	본존 77.5/제화갈라60.0/미륵67.5
		주사암	석가 78.9/제화갈라62.5/미륵69.0
	경산	환성사 명부전	지장 79.0/도명85.0/무독94.0
	의성	수정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지장 76.0/도명70.0/무독76.0
	청송	대전사 보광전 석조삼존불좌상	석가104.0/보현78.5/문수76.0
	김천	계림사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	아미타67.0/관음59.3
	군위	지보사 극락전 석조삼존불좌상	본존 83.0/좌협시69.0/우협시66.5
		군위 인각사 석조삼존불좌상과 16나한상	아미타133.0/세지123.0/관음125.0
	영천	부귀사 극락전 석조삼존불좌상	본존 93.5/좌협시74.0/우협시77.0
		은해사 기기암 석조보살좌상	86.2
	포항	보경사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	석가106.0/제화갈라84.7/미륵84.0
		보경사 청련암	50.8
	청도	덕사 영산보전 석조삼존불좌상	석가92.7/제화갈라76.5/미륵82.5
		덕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지장118.0/도명111.5/무독129.5
		대둔사 극락전 석조삼존불좌상	아미타85.0/세지69.0/관음69.5
		대비사 대웅전 석조여래좌상	116.0
		용천사 나한전 석조삼존불좌상과 16나한상	석가60.0/제화갈라70.0/미륵67.5
운문사 나한전 석조삼존불좌상과 16나한상		석가83.0/제화갈라67.6/미륵69.0	
	운문사 내원암 석조여래좌상	87.0	
경남	거창	연수사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	석가98.0/보현82.5/문수78.5
	창원	성주사 영산전 석조삼존불좌상과 16나한상	석가89.5/제화갈라77.5/미륵82.5
		성주사 지장전 석조지장시왕상	지장117.0/도명110.0/무독125.5

기장	장안사 응진전 석조삼존불좌상과 16나한상	석가66.3/제화갈라59.0/미륵55.0	
	장안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지장102.5/ 도명96.5/ 무독105.5	
통영	용화사 보광전 석조삼존불좌상과 16나한상	석가98.5/제화갈라91.8/미륵95.5	
의령	수도사 석조삼존불좌상	석가92.8/제화갈라83.3/미륵89.0	

위 표를 지도 위에 옮겨 놓으면(도 19), 봉안처가 해안과 가까운 위치에 현존해 있으며, 불석의 산출지 구룡포, 양남 등 포항일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석재의 산출지, 운반, 그리고 현존 봉안처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도 19. 승호·승호파의 활동(●)과 불석의 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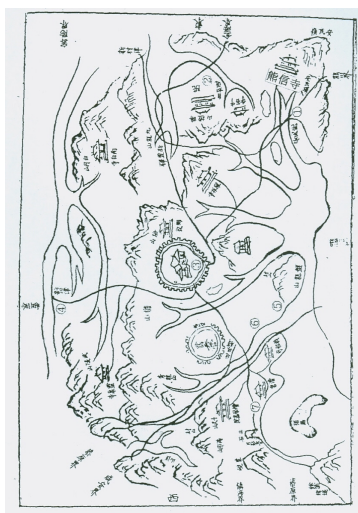
도 20. 영호남연해지역의 항로(고동환, 『朝鮮後期 商船의 航海條件』, 『韓國寺研究』123. 322쪽. <도 1>참고)

조선후기 석조불상을 이운한 기록을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되었다. 우선 김천 직지사 천불전의 불상 이운에 관한 기사로, 경주 기림사에서 천불중 일부인 250구를 조성해 22대의 수레에 실어 육로로 이운했다는 것이며³²⁾ 또 다른 하나는

32) 응진전(나한전)과 지장전(명부전)에는 각각 석가삼존상, 지장과 양협시를 제외하고도 양측으로 시왕과 16나한, 범천, 제석천, 판관, 귀왕, 사자, 장군, 동자 등의 많은 상들이 있다. 현재 제시한 전각의 불상들은 모두 불석으로 조성되어 있다.

33) 김천 직지사 천불상조성기 “...乾隆甲辰(1784)十二月十二日千佛中二百五十九 位於慶州地祇林寺造成翌年正月二十四日 點眼二十六日發程陸路造輦二十二次陸路移 運各寺僧軍搜眉爭侍道路 觀佛閣若市...”(『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경북II』, 2008,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125쪽.

해남 대둔사 천불전 불상의 이운에 관한 것으로 경주 석굴암에서 만든 천불상을 해남 대둔사로 신고 오던 중에 풍랑을 만나 일본 장기도에 정박했다는 내용이 다.³⁴⁾ 이로 보면 불상의 이운은 수레와 배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짐작컨대 승호·승호파의 불상도 역시 이와 같은 방법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특히 배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승호·승호파의 불상이 해안선을 따라 불상이 봉안되어 있으며(도 19) 불석불상의 봉안처가 상업유통의 해로와 수로와 거의 일치하고 하며(도 20), 큰 포구가 위치해 장이 서고 물품의 수송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며, 불석의 산출지인 포항일대도 그 해로에 포함된 사례들이 많다. 예를 들어 창원 성주사는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통하고 마산포



도 21. 창원 마산권의 周邊現況
(『18·19세기 경상도남부지역의
상품유통구조』, 『지역과 역사』
제5호, p. 212인용)

와 진해의 내포를 끼고 함안, 의령, 진주까지 물품의 공급로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전한다.³⁵⁾ 이러한 물품 공급로에 있는 의령은 수도사가 있으며 성호가 조성한 석조삼존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고성이나 통영은 옥천사와 용화사가 있는 곳으로 승호파의 작품이 역시 남아 있다. 이 두 곳은 三道水軍統制營(統營)이 위치해 있어 역시 물화 교역의 유통 중심지로 함경도, 강원도로부터 불석의 산지인 포항, 감포 등을 거쳐 올 수 있는 해로가 확보되어 있는 곳으로 이곳 역시 불석 운반을 용이했으리라 생각된다.³⁶⁾ 승호의 작품이 남아 있는 기장 역시 경상도 연안의 평해, 영일-울산-부산의 부산포까지 연결되는 해안 루트가 확보된 상업유통의 중심였다.³⁷⁾ 이와 같이 불석불상의 분포지가 해안선을 따라 위

고성이나 통영은 옥천사와 용화사가 있는 곳으로 승호파의 작품이 역시 남아 있다. 이 두 곳은 三道水軍統制營(統營)이 위치해 있어 역시 물화 교역의 유통 중심지로 함경도, 강원도로부터 불석의 산지인 포항, 감포 등을 거쳐 올 수 있는 해로가 확보되어 있는 곳으로 이곳 역시 불석 운반을 용이했으리라 생각된다.³⁶⁾ 승호의 작품이 남아 있는 기장 역시 경상도 연안의 평해, 영일-울산-부산의 부산포까지 연결되는 해안 루트가 확보된 상업유통의 중심였다.³⁷⁾ 이와 같이 불석불상의 분포지가 해안선을 따라 위

³⁴⁾ 오세창, 1998, 《국역 權域書畫徵》下, 810~811쪽. (해남 대둔사 천불전 불상은 1821년 작품이며, 불상의 크기는 21.1-28.5cm는 내외의 소형이다. /고동환, 1998, 『朝鮮後期 서울 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458쪽: 全國浦口間商品流通狀況表참조. “함남 홍원에서 출발하여 창원-경주-해남으로 항로이며, 홍원의 어물을 창원에서 판매하고 각종물화를 경주에서 구매하고 더불어 불상700여구를 운송해 경주에서 해남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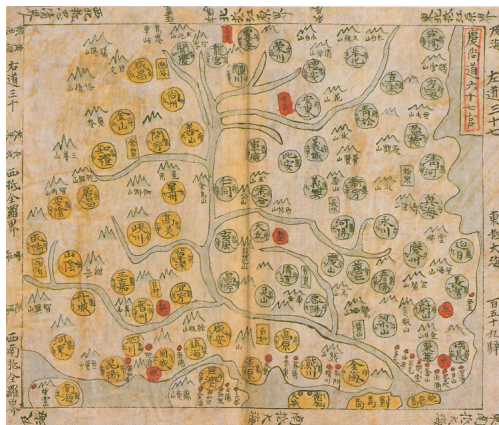
³⁵⁾ 변광석, 1999, <18·19세기 경상도 남부지역의 상품유통구조>, 《지역과 역사》 제5호, 부산 경남역사연구소, 202~203쪽.

³⁶⁾ 고동환, 1998, 『朝鮮後期 서울 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169~175쪽.

³⁷⁾ 김동철, 2010, 『18세기후반~20세기전반 기장지역의 시장권』,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3권 1호, 97~98쪽.

치하는 것은 원산지로부터 불석 공급이 해로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밀양, 청도, 경산, 청송 등은 해로와는 멀지만 해로와 유기적으로 낙동강과 연결되어 경북 상주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중요한 水路 이어져 있었으므로³⁸⁾ 역시 물자 유통에



좋은 지리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도 22). 역시 밀양 만

도 22. 경상도의 옛지도(18세기, 작자미상): 이민수역, 2005, 『택리지』팔도총론, 경상도, p. 86도판인용

어사, 청도 덕사, 청송 대전사 등에도 역시 승호·승호파의 작품이 남아 있으며, 그 외 구포, 김해 지역에도 많은 석조불상이 현존해 있다. 물품의 운송에 수레보다 배를 이용한 것이 조선후기 교역의 일반적인 수단이었는데 배를 이용하는 것이 수레나 말을 이용하는 것보다 운송비 등 경제절감에 효과적인 운송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³⁹⁾

조선후기 석조불상의 재료인 불석은 원재료가 그대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다. 기림사, 대둔사의 천불은 30cm내외의 소형불상이며, 다량의 불상을 거의 동시 제작해야 한다면 불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석재의 산출지에서 불상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원활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기림사와 대둔사 불상조성은 특별한 사례일 것이며, 목조상이나 소조상을 조성하는 것과 같이 봉안처에서 불상을 조성해 봉안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따랐을 것이라 생각된다. 규모가 큰 완성된 무거운 불상의 파손 등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불상 차체를 옮기는 것보다는 원재료를 그대로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³⁸⁾ 변광석, 1999, 같은 글, 197쪽/ 『擇里志』八道總論, 慶尙道, “...洛東江路東者謂尙州之東也江入于金海劃居...”

³⁹⁾ 《擇里志》生利 “...貿遷交易之道乃神農聖人之法也無此則無以生財然馬不如車車不如輪我國山多野小車行不便一國商賈皆以馬載貨道遠盤纏之費贏得少是故莫如輪運貨財而爲貿遷交易之利...”

VI. 맺음말

지금까지 창원 성주사 영산전과 지장전 불상을 중심으로 승호와 승호파의 불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성호의 여러 작례를 통해 볼 때 성주사의 영산전과 지장전 불상들은 1681년에 동시 조성된 것이라 판단된다. 승호, 혹은 승호파가 조성한 諸像은 둔중한 신체감, 장방형 머리, 사선의 눈매 등의 특징을 보이고, 특히 균의 안쪽단이 양측으로 반전하는 것이라든지 소매의 단 끝이 무릎 쪽으로 꺾이는 형식 등은 현진파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승호, 승호파의 불상은 모두 불석을 재료로 조성된 것인데 불석은 경북의 구룡포, 감포 일대에서 생산되는 돌이다. 이 같은 이유때문인지 그가 조성한 불상은 주로 경상도에 분포한다. 즉 돌의 산지와 가까운 곳이나 해로나 수로를 통해 운송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어 불석불상의 현존위치는 운송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승호가 목조상을 조성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색란이나 충옥 등 다른 조각승과 그는 주로 불석 불상을 조성했던 인물로 추정되며, 그의 아류작이 청도 대적사, 청송 대전사, 울진 석남사 등에 조성된 것을 보면 불석불상조성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본 논문에 거론된 불상은 양식적으로 판단에 의거해 조각승을 짐작했다는 점이 아쉬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상도 지역의 특색인 불석 불상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 투고일 2010년 7월 21일 |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8일 ■

참고문헌

-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7,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경북 I』
-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8,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경북 II』
-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9,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 I』
-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10, 『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 II』
- 고경 감수, 김희태·최인선·양기수 譯註, 2001, 『역주 보림사 중창기』
- 고동환, 2002, 『朝鮮後期 서울 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 오세창, 1998, 《국역 槿域書畫徵》 下
- 이민수역, 2005, 『택리지』
- 金吉雄, 2008, 『靑松 大典寺 冥府殿 石造地藏菩薩三尊像에 관한 考察』, 『文化史學』제29호, 111~123쪽.
- 金吉雄, 2007, 『彫刻僧 勝浩가 제작한 불상』, 『문화사학』제27, 881~894쪽.
- 문명대, 2008, 『17세기, 인·숙종기의 불교조각』, 『위대한 변혁기, 17세기미술 - 인종에서 숙종까지의 미술』, 제16회 한국미술사연구소학술대회, 한국불교미술사연구회.
- 문명대, 2006, 『조각승 무염, 도우와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 미술사』제26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 文明大, 2006, 『松林寺 大雄殿 石 阿彌陀三尊佛坐像의 연구』, 『講座 美術史』 27호, 韓國佛教美術史學會
- 송은석, 2008, 『무염과 출신의 조각승 도우와 회장파의 합동작업』, 『미술사와 시각문화』7, 사회평론.
- 宋殷碩, 2004, 『17世紀 彫刻勝 玄眞과 그 流派의 造像』, 『美術資料』第七十·七·十一號, 국립중앙박물관.
- 이분희, 2006, 『조각승 勝一派의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 미술사』제26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 이희정, 2005,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淸憲』, 『불교미술사학회』 3호,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 이희정, 2008, 『기장장안사 대응전 석조삼세불좌상과 조선후기 석불』, 『문물연구』 제14호,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 최선일, 2010,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의 활동과 불상연구』 『선문화연구』 제8집
- 김창균, 2002, 『거창·창녕 포교당 성묘조사기』, 『聖寶』 제4호, 大韓佛敎曹溪宗 聖寶保存委員會
- 고동환, 1998, 『朝鮮後期 서울 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 김동철, 2010, 『18세기후반~20세기전반 기장지역의 시장권』,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3권 1호.
- 변광석, 1999, <18·19세기 경상도 남부지역의 상품유통구조>, 《지역과 역사》 제5호, 부산경남역사연구소.

Abstract

A study on stone Buddha Statues of Jijangjeon and Yongsanjeon in the Sungju-temple in Changwon City

Lee, Hee Jung

Sungjusa is an old temple in Changwon City and it is said to be established in about early 9th century. Its inscriptions and buddha statues are mostly made after Imjinran(A War between Korea and Japan in 16C).

An investigation for cultural assets carried in June 2009 confirmed the concrete environment about Buddhist cultural assets of Sungjusa.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t is intriguingly confirmed for Seung-Ho to sculpture not only the Buddhist Sculpture at Jijangjeon but also the Buddhist sculpture at YongsanJeon, and many other Sculptures at many other places such as Eunginjeon(1684), Myeongbujjeon(1684) at Jangansa Temple in Gijang nearby, Sudoam(Late 17C), Yongsanbojeon and Myeongbujjeon at Duksa temple in Cheongdo, Bokwangjeon at Daejeonsa Temple in Cheongsong.

Especially, the Statue of Yongsan at Sungjusa Temple was estimated to sculpture at year of 1681 with the sculpture at Jijangjeon by the fact of sculptured feature.

Common features of the sculptures made by Seung-Ho are hefty body volume, slanting eyes, the feature of 2 ends of Geun that was turned over,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end of sleeves was turned to the direction of knees. Those above mentioned buddhist statues was featured by being made of buddhist stone called Kyeongjuwoksuk and produced in some restricted areas.

The distribution of this stone was found on some coasts in Kyeongshangdo and Nakdong river area, which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the maritime distribution and river canal has been utilized as a vehicle to move the stone mentioned.

In a nutshell, this dissertation clarifies strong relationship between commercial route and the distribution of buddhist statues.

Key Words : Sungju-Temple, Jijangjeon, YongsanJeon, Seung-Ho, Zeolite